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결정)에 관한 비교: 사회학적 해석 중심으로

엄주란¹, 문재우^{2*}

¹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Comparison of the Welfare Attitudes determination between livelihood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Focusing on Sociological Analysis

Joo-Ran Eom¹, Jae-Woo Moon^{2*}

¹Profess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Hansei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대한 상호관계 이해도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살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년(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인 382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PSM) 매칭 후 차이분석(DID)과 구조방정식 AMO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 보다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특수적 프로그램 복지정책이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치인식인 정부신뢰, 사회인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 방향 정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복지태도, 수급자, 비수급자, 사회·문화적 변화, 비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xamine the understanding of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attitude of the recipients and the non-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 (11th) were us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ifference analysis (DID) and structural equation AMOS after matching propensity scores (PSM) to 382 adul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lfare attitud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than the non-recipients. Second, Positive program welfare poli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welfare attitude for both the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Third, The value recognition government trust and social awarene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the non-recip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the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members of society.

Key Words : Welfare attitude, Recipients, Non-Recipients, Change in Social and Cultural, Compare

1. 서론

사회 구성원의 복지태도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 상황과 문제의식과 관계가 있고, 문제해결 방향을 예측한다.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지 여부와 그리고 복지비용 문제, 재분배 또한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이나 태도이다. 복지의식은 사회현상 및 문제와 관련된 복지에 대한 가치 및 신념으로 사회 구성원의 마음이라면 복지태도는 특정한 사건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복지의식에 기반을 둔 행동성향으로 분류하여 혼용해서 사용한다[1-3]. 선행연구에서 개인별 생애주기에 따라서 주위 가족, 동료, 이웃과 특히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박탈 경험이 많을수록 수급자들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이 변화할 수 있고 양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양한 계층과 상황에서 복지 욕구와 태도는 다양하고 변화할 수 있다[4].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14년은 1,328,713명(814,184 가구), 2015년 증가하여 1,646,363명(1,014,177가구), 2016년 1,630,614명(1,035,435 가구)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2017년 수급자 1,581,646명(1,032,996 가구)으로 일반 수급자 1,491,650명 시설 수급자 89,996명, 2018년 1,743,690명(1,165,175 가구)으로 일반수급자 1,653,781명, 시설수급자 89,909명으로 다양한 형태의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5-8]. 때론 사회 구성원 누구나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으며, 갑자기 빈곤해질 수 있다.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식화된 일련의 사회정책들로 구성된다. 이런 과정에 역사, 사회·문화적으로 공공담론과 가치 및 신념은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을 형성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담론(談論)에 의해 복지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9]. 급격한 사회·문화, 경제적 변화와 기술혁신과 생산력 발전의 영향으로 불평등은 차이가 더 심할 수 있다.

Noamchomsky(2018) '불평등의 이유' 서적 내용 중에도, 문제 인식이나 정보의 차이에 의해 개인 상황, 욕구 등을 인식하는 정도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0]. 제도적 규칙과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가치와 선호를 다양하게 형성시키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1]. 보통 취약계층으로 불릴 수 있는 수급자, 차 상위 계층, 여성, 아동·청소년, 1인 가구, 무연고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 교육 등 격차 등 더욱 심각할 수 있다[12]. 이럴 때 가족, 사회관계망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삶의

질'에서 품질은 거시·포괄적이며, 또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삶의 질'에 대한 개념화 그리고 다양한 이론 및 실증적 접근에 대한 이해는 품질 연구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삶의 질 관련 프로그램으로 환경,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교육으로 '삶의 품질'로 조작적 정의한다.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은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하며,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문제인식, 제약인식 및 관여도로 본다. Noamchomsky(2018) 내용 일부분에서 불평등은 사회 전체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큰 문제이며[10], 갈등론 입장에서도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해내는 핵심으로 간주하며 사회 불평등 인식은 영향을 미친다[14]. 사회적 갈등은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최근에 조세 부담, 복지비용의 예산, 규모와 방향 등 서로 집단에 이해관계에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15]. 사회 구성원이 어떤 문제나 갈등에 봉착하였을 때 특수한 전문분야 교육, 건강, 법, 제도 등과 밀접하게 관련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인지 및 해결 방안을 찾는지 중요하다. 사회인식은 자아, 타인 및 상호작용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인식(認識)은 사회구조·심리적 측면 모두 함께 살펴봄, 보편적·선별적(복지서비스 대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수준, 소득이나 재산의 평등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16].

복지정책을 세울 때 목표는 시장경제에 의한 불평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가 불평등, 형평(衡平)하지 않고 느낄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평등, 정의 측면에서 세금부과 공정성 및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기여가 필요하다[17]. 복지 관련 이슈와 쟁점에서 대부분 복지증대 및 축소 논의로 이어진다. 즉, 총체적(holistic)인 복지태도 성장과 분배 문제가 항상 거론된다. 한국은 역사 사회·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선성장 후 분배'의 기초가 지배적인 경향이 있다[18]. 정당의 합법성은 공적 부문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정치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정부의 질이 중요하다고 한다[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측면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즉, 복지의존과 관련하여, 수급 이전 겪게 되는 힘든 상황과 복잡한 절차 등, 수급 경험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20].

사회갈등 인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분배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만, 욕구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21]. 즉, 복지 욕구는 상대적 개념이며 사회 구성원이 더 내려가면 힘든 최하 수준의 상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재

생활하는데 최소한 보장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 이외 개인별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22]. 보통 사회 구성원은 생존권, 평등, 기여, 능력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복지태도를 가지며 권리의 차원은 낮게 인식하는 편이다. 개인은 미래에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기대하며 교육, 건강 등 자신이 부족하거나 채워야 할 부분에 몰두하게 되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 공헌하고 집단 행위 근거를 개인 이익 추구 연장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래서 기대모델(Expectancy Model)은 동기와 자신감이 중요하며, 능력과 기대에 따라 다중역할을 기대한다[23]. Pierson(1994)에 의하면 복지, 수급 경험 등은 사회규범 및 사회학습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 수렴이론과 선행연구에 의하면 생활수준, 국가 간 차이도 유사해 진다[25,26]. 선행연구에서 복지 지위를 단일차원에서 살펴보고, 복지태도는 복지수혜자-납부자에 있어 '물질적 희생' 개념으로 보고 정부 신뢰에 따라 조절 되었다[27].

일상생활에서 복지수급경험을 통해서[28] 더 나아가 각 개인의 특성, 타 국가의 문화, 역사를 알면, 전문 서적 산체스네 아이들(2013)을 읽고 멕시코 가족 일대기를 통해 우선 기본적으로 빈곤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정보, 경험 및 문제인식 정도에 따라 정책이 실행되기도 한다[29]. 또한 Rawls의 정의론에 의하면,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의해 취약계층과 불평등의 차이를 줄이는데 동기와 열정, 이해 및 정책 등이 중요할 수 있다[30]. 선행연구 내용의 일부 중 법 제도보다 도덕, 개인의 자유의지 및 주관적 행복 등이 중요할 수 있다[31,32]. 사회 구성원 상호관계 및 존중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서로 이해를 통하여 정책을 실행하며, 인간의 존엄성, 인격 및 품위 및 윤리와 사상 철학이 중요할 수 있다[33].

사회 구성원의 정치, 가족, 교육 시스템이 더 나아가 국가시스템 수용에 있어서 소득, 비용보다 개인 욕구 및 차별성에 따라 서로 존중 및 인정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삶의 품질(品質)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신뢰(信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신뢰'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정치 신뢰, 정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고 개인의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신뢰는 부패, 청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기대와 성과 등에 따라서 좌우된다[34]. 최근에 현실 정치에서는 복지와 관계하여 권리 등에 관심이 많고[35] 보편적으로 사회 공동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 고용, 실업 대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특수적

(Positive) 프로그램은 빈곤층, 장애인 및 노인의 생활지원과 아이 키우는 가족에 대한 지원, 실업 대책 및 고용 보험으로 한다. 사회질서 입장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질서는 국방, 치안 및 사회질서로 조작적 정의한다.

노인 대상 복지태도 선행연구에서 직접 관련 있는 노인 서비스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역할과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36].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경험으로, 소득격차 해소, 사회복지와 근로 의욕, 성장과 분배, 조세와 복지 관련된 구체적인 노인 프로그램으로 복지태도를 살펴보았다[37]. 외국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복지태도는 국가 범위 및 책임, 조세 및 재정, 대체 복지국가 모델 및 타깃그룹 중심으로 살펴보고 변화하는 유럽 사회에 대체되는 모델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인식 및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기대에 대해 살펴보았다[38].

그러나 개인의 복지 욕구도 매우 다양하며 사회 변화도 빠르다.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과 제도에 있어 총체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며[39,40], 양극화된 사회와 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사회 구성원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41]. 외국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가 간,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에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복지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42].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연구대상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복지 욕구도 매우 다양하고 변화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대상으로 비교하며, 가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인식을 살펴보았다. 패러다임이 갖는 실천적 측면이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 목표나 방향, 평가와 다양한 경험을 한 사회 구성원의 안정과 행복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경험적인 분석과 이론 해석이 미흡하다[4,36]. 현 시대 사회문화 변화 차이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회 구성원의 특성과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 우선 타겟(target)/수급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지속적 정책 방향 기초정립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6년 1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패널조사 중에서 매년 전국지역 조사를 하며 규모도 큰 편이며, 빈곤, 취약계층 관련 보건-복지분야 전반적 카테고리 변수가 포함되어있다[43]. Spss 및 Amos 23 프로그램 임시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매칭 방법은 Renssential 을 설치하여 R 과 연동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성향점수 매칭 하였고, 매칭 후 차이 검증 하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경로적 인과모형을 설계하여 다중집단 분석 조절효과를 실시하여 복지태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성향점수 차이가 근소한 순으로 매칭하는 최소거리법(NN: Nearest Neighbor Matching)을 사용하였고, 성향점수 차이에 있어 지나치게 큰 관측치가 매칭 되지 않도록 캘리퍼를 0.5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복지패널 자료 가구용, 가구원, 그리고 부가조사가 병합된(merge) 자료를 사용하였고 수급자 191명, 비수급자 191명 총 38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선행연구, 분석방법에 맞게 성인 가구주로 한정하였다[44].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분석결과는 지면 등 한계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칭 전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의 성별은 남자는 69.7% 여자는 30.3%로 남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1:1 매칭 후 여성 수급자는 59.7%, 남자는 40.3%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비수급자의 성별 비율도 동일하였다. 둘째, 매칭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70대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이상 23.6%, 60대 20.4%, 50대 14.7%, 40대 7.9%, 30대 이하 3.7%순으로 나타났다. 비수급자는 70대 35.6%, 80대 이상 17.8%, 60대 17.3%, 50대 15.7%, 40대 12%, 30대 이하 1.6%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62.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고졸 15.7%, 중졸 15.2%, 전문대졸 이상 6.3% 비율을 차지하였다. 비수급자의 교육수준도 초졸 이하가 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졸 18.8%, 중졸 13.6%, 전문대졸 이상이 7.9%순이다. 즉, 매칭을 통해서 교육수준 비율이 비슷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수급자의 지역을 살펴

보면 대도시 53.4%로 대부분 거주하였고, 중도시 28.3%, 소도시 18.3%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급자의 지역은 대도시 55.0%, 중도시 26.7%, 소도시 18.3%로 매칭결과 지역 비율도 비슷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매칭 후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수급자는 1,543.89만원, 비수급자는 2,918.88만원이다.

2.2 척도

본 연구 종속변수 '복지태도'는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의 비용부담의지 및 재분배로 조작성 정의한다. 정부신뢰(평가)는 '사회 구성원의 기대에 대한 정부의 부응 정도를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정부의 기능적 신뢰는 Barber(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Book Reviews의 내용에서 책임성, 개인효과 등을 강조하였으며 신뢰는 역할의 가치, 다른 기술의 정도에 따른 책임성에 관심을 가졌다. 사회 구성원의 신뢰는 도덕적 공동체, 사회적 질서 유지 및 통제, 경제적 예산 부분 등 책임에서 인식한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부 역할수행에 대하여 유능한 기술적 기대'로 본다. 지면상의 한계로 변수 재부호화는 부록을 참조 바란다.

분석 전에 변수는 Z-Score 처리하였으며, 정부신뢰(평가) 문항의 Cronbach's α 0.854이며, 요인 분석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 .872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카이제곱이 1,194.521 Sig .000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도 검증되었다. 삶의 품질 Cronbach's α 는 0.646이며, 약자보호 0.748, 사회질서 항목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0.665로 사회인식 모든 측정항목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도 확인되었다[46]. 특수적 프로그램 문항 요인 분석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 .761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Square 1,121.775, Sig .000으로 구성개념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향점수는 logit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매칭의 질 효과를 위하여, 매칭 후 변수 구성의 상대적인 변수의 불균형을 살펴본 결과 매칭 전 .523, 매칭 후 .455로 나타났다[48]. 우선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Fig. 1과 같이 성향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자와 동질성 확보되었고, 매칭 후 성향점수 분포 양상이 유사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Amos 인과모형을 설계하여 Table 1, Fig. 2 확인요인분석 결과 관찰변수는 적합하였고, 모형은 3차에 걸쳐 수정하여 최종모형은 동일성도 성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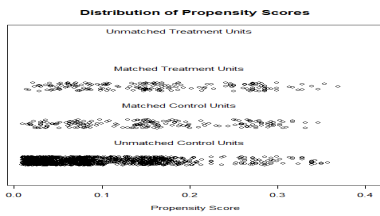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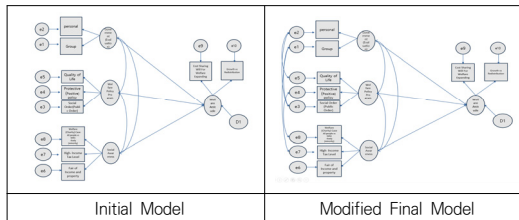


Fig. 1. Propensity Scores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Equivalence Check Point

	χ^2 P-value	DF	GFI	CFI	IFI	RMSEA
	0.05 ≤		0.9 ≤	0.9 ≤	0.9 ≤	0.08 ≤
Recipients	18.731(.344)	17	.976	.993	.993	.023
Non-Recipients	31.711(.016)	17	.962	.893	.901	.067
	χ^2 (P-Value)		DF	GFI		
Unconstrained	68.925(.025)		48	.967		
<model 1> Measurement Weight	73.949(.037)		54	.965		
<model 2> Structural Weight	69.626(.043)		51	.967		
<model 3> Structural Residuals	85.141(.009)		57	.960		



Note. Equivalence Check Point

Recipients : $\chi^2=35.822$, df=29, p-value=.179, GFI=.964, CFI=.974,

IFI=.976, RMSEA=.035 Non-Recipients: $\chi^2=39.170$, df=24
p-value=.026, GFI=.964, CFI=.913, IFI=.922, RMSEA=.058

Fig. 2. Amos Research Model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복지태도 차이분석 결과 Table 2와 같다. 첫째, 복지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 의지가 높았다. 수급자는 평균 4.69, 비수급자는 4.40으로 t값은 2.066,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성장과 분배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복지태도 차이분석(DID)결과와 결정요인에서도 다른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매칭 전과 후 모두 삶

의 품질과 특수적(Positive) 프로그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매칭 전 분석결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삶의 품질(品質)은 평균 3.36, 비수급자는 평균 3.23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삶의 품질을 더욱 추구하였으며 t값은 2.541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p<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특수적(Positive)프로그램은 평균 3.61, 비수급자는 3.45로 t값은 2.506으로 수급자는 특수적 프로그램을 더 추구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2. Welfare Attitude Difference

		Recipients [M(SD)] N=191	Non- Recipients [M(SD)] N=191	DID	T-test		
					t	P	
Cost Sharing Will For Welfare Expanding		4.69 (1.374)	4.40 (1.349)	.288	2.066*	.039	
Growth vs Redistribution		2.64 (.815)	2.48 (.800)	.162	1.964	.050	
Factor	Government trust (Evaluation)	Personal	3.62 (.618)	3.54 (.603)	.079	1.258	.209
		Group	3.09 (.642)	3.02 (.569)	.066	1.063	.289
	Welfare policy Program	Quality of life	3.36 (.510)	3.23 (.523)	.134	2.541*	.011
		Protection (positive) policy	3.61 (.530)	3.45 (.556)	.162	2.906**	.004
		Social Order (Public Order)	3.50 (.720)	3.46 (.632)	.044	.639	.523
	Social Awareness	Welfare (charity) Case All people vs Selectively (minority)	3.45 (1.336)	3.28 (1.290)	.173	1.285	.199
High-income Tax level		4.15 (.839)	4.10 (.926)	.047	.521	.603	
	Fair of income and property	5.05 (1.385)	4.96 (1.194)	.084	.633	.527	

Note: SD : Std. Deviation

sig: *p<.05, **p<.01, ***p<.001(two-tail test)

셋째, 다중집단분석 조절효과 분석결과 Fig. 3, Table 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구성원이 복지태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수급자 모두 정책 프로그램 정부신뢰(평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수급자 모두 삶의 품질과, 특수적(Positive)프로그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대상을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선별적으로 한 것에 따라 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변수에서 경로계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특수적(Positive) 프로그램에서 수급자, 비수급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 전체 구성원의 삶의 품질 수준과 향상이며, 사회복지 실현을 통해 효율 및 분배의 구현 때문으로 보인다.

Table 3. The Multi-Group Analysis

	Recipients	Non-Recipients	Label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path coefficient			
	standardization (SE)	standardization (SE)		
Government Trust(Evaluation) → Welfare Attitude	-.054 (.145)	-.163 (.145)	b1_1	.033 (no)
Welfare Policy Program → Welfare Attitude	.174* (.293)	.529* (.293)	b2_1	-.038 (no)
Social Awareness → Welfare Attitude	-.013(.395)	-.040 (.395)	b3_1	.035 (no)
Personal → Government Trust(Evaluation)	.724*** (.135)	.536*** (.113)	a1_1	.329 (no)
Group → Government Trust(Evaluation)	.894	.986		
Quality of Life → Welfare Policy Program	.813*** (.344)	.507*** (.287)	a3_1	.827 (no)
Protective (positive) Policy) → Welfare Policy Program	.024*** (.288)	.591*** (.333)	a2_1	-.485 (no)
Social Order(Public Order) → Welfare Policy Program	.246	.442		
Welfare(charity) case : All people vs Selectively(minority)→ Social awareness	-.124* (.198)	-.095* (.191)	a5_1	-.381 (no)
High-income tax level → Social Awareness	.024 (.192)	.179 (.296)	a4_1	
Fair of Income And Property → Social Awareness	.246	.274		
Welfare Attitude → Cost Sharing Will For Welfare expanding	1.065	.361		
Welfare Attitude → Growth vs Redistribution	.163 (.258)	.427* (.348)	a6_1	1.299 (no)

Note. Model of the weight.
SE: Std. Error of Mean
Sig: *p<.05, **p<.01, ***p<.001(two-tail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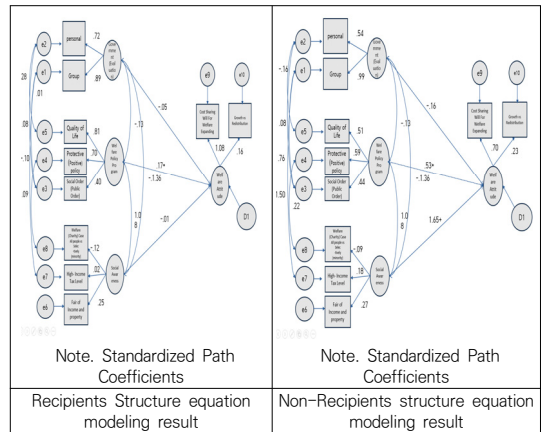


Fig. 3. Structure equation modeling result

4. 연구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변화된 시대 흐름과 저성장 경제, 사회문화 변동에서 통상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여성, 노인, 장애인 특히 취약한 사회 구성원의 복잡한 상황에서 복지욕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욕구 및 특성을 비교 파악하기 위해 수렴이론, 기대모델, 상황이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며, 최근 다양한 경험의 사회 구성원(1인 가구 증가 등)이 많고, 이론 해석 중심으로 된 연구가 미흡하기에 사회학적 해석을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 첫째 복지태도 차이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보다 복지태도에서 복지확대에 비용부담 의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성향점수 매칭 전과 후 차이검증 결과 삶의 품질과 특수적(Positive) 프로그램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며[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 구조적 및 심리 사회적으로 복지 의존하는 형태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알콜을 중독인 경우, 근로가능 수급자는 건강(신체 및 정신건강), 경제적 자활 및 교육에 질 좋은 서비스 욕구가 높을 수 있다[48,49]. 본 연구에서 통계결과와 이론 및 선행연구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문제 1 결과 성장과 분배는 선행연구와 같이 수급자와 비수급자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가치 및 이념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기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36].

둘째, 통계결과와 이론 및 선행연구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문제 2 결과 사회 구성원의 복지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복지정책 프로그램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품질과 특수적(Positive) 프로그램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복지태도 차이분석 결과에서 수급자와 비수급자는 삶의 품질과 특수적 정책 프로그램 약자보호 및 삶의 품질과 관련된 정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수급, 누수 등도 많으며 제한된 국가 예산 안에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예산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삶의 품질과 특수적(Positive) 프로그램 중심으로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점검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48]. 이테올로기 패러다임이 복지예산 및 대상자에 있어 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수급자 모두 개인 정책 프로그램 정부 신뢰(평가)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복지 서비스 대상에 따라 사회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는 상황이론과 관련하여 개인 내재적 특성과 상황 및 경험이 중요할 수 있다.

셋째, 가치인식인 정부신뢰, 사회인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복지태도에서 복지지위보다 사회불평등 인식이 중요할 수 있다[50].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있어 성장과 분배에서 사회 구성원의 입장은 역사·사회 문화 성장 중심이어야 한다는 가치, 이념이 많고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복지태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복지 정책 프로그램은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신뢰, 사회인식은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든 경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사회학적 해석을 살펴보면, 첫째, 상황이론 및 해석과 관련하여 미디어 매체를 통해 사회문제 갈등 및 인식 정도, 이해와 공유가 중요할 수 있다. 사회문제, 인식 정도는 오류와 편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재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수렴이론 측면에서 복지지위, 수급경험이 중요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현재도 구성원 간 서로 이해 경험이 많을수록 기존의 가치와 인

식이 점차 변화할 수 있다. 인간, 가족, 국가체제 비교한다는 것, 즉 동근성(同根性)은 수렴이론을 도출하기에 어찌면 지금 당장은 더욱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개인의 실업, 육아, 고용의 질, 성별, 건강 등 불평등의 차이와 오류와 편견 문제가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다. 즉 한국의 사회문제가 외국의 사회문제일 수 있다. 비교를 통하여 좀 더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갈구해야 한다. 1930~40년대 대공황 위기 시대 새로운 유형의 국가가 출현했고, 어려운 시기, 시대를 되짚어 보면서 사회 구성원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대이론 측면에서 나(我)-너(汝), 여자(女)-남자(男), 아이(童)-어른(丈), 동물(動物)-인간(人間), 수급권자-수급자, 객-가족, 비 장애-장애, 우리나라-외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 성장해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개인이 속한 장소, 조직에 공헌하고 기대이론에 의해 기대와 비전 및 행복, 다중역할을 기대하고, 국가체제 등 모두 성장, 성숙 되고 발전 가능성 등을 보고 사고방식과 태도를 역지사지(易地思之)해봐야 한다. 사회문제 갈등 및 인식에 있어서 사고방식과 태도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오류와 편견을 알아가고 바로 잡는 과정은 중요하다. 개인의 문제, 사회문제, 이슈, 사회갈등의 심각성 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하고 변화하고 행동하기 위해, 산체스네아이들의 전문 서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국가에서 모든 영역에 빈곤 취약계층이 있으며, 역사·문화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9]. 기본적으로 언어를 알고 역사, 문화를 이해해 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은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서도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 및 조직이 더욱 건강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있어서 건강과 교육에 있어서 차이가 줄어들 수 있고, 각 분야의 특수한 의미를 알아가고, 언어를 이해하고 생활하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정책 지원할 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안에서 유지하고 때론 변화해야 하는 문제는 힘들고 사회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가구 형태 또한 많이 변화되었고,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미혼, 만혼 성인 자녀, 비혼, 배우자 사별, 무연고 노인 등 부모 및 보호자의 독립기간이 길거나,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같이 그 국가의 특수한 역사, 사회 문화 상황을 고려한 복지예산 지출, 중복수혜, 누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51].

저성장 시대이고, 사회경제·문화의 변화로 수급권자에서 수급대상자로 수급자에서 수급권자로 복지 지위가 변동이 많으면 불가피하게 피해의 영향력도 취약계층일 수 있다. 그렇기에 정책입안자, 국회의원, 교육자 등 모두 이런 제도의 변화로 상호이익과 불이익 관계에서 사회문제 및 갈등 인식을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로 좋은 방향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문제, 복지이슈, 정책, 제도, 복지재정 시스템 등 보다 정확한 이해 및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우선 자신의 가치나 판단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은 어떤 계기로 변화될 수 있고 태도가 변화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 정보 및 교육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 및 매체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 구성원의 복지태도에 대한 상호관계의 이해 폭을 넓히고 정책수립 등에 있어서 수렴이론, 기대 모델, 상황이론 중심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 대상자는 현재보다 좋은 환경에서 빈곤 진입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즉 개인, 가족 및 국가 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배려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 전문 분야와 협력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육, 사회 학습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 문제가 가족, 국가의 문제일 수 있고, 역할 및 문제갈등 및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체성 확립, 존중과 배려, 자기계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 사회 불평등 및 인식에서 사회 기여를 많이 하지 못한다는 피해의식, 오류 및 편견을 줄이고 능동적으로 행동 및 실천해야 한다. 여러 타 전문분야 측면에서, 오류와 편견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실천에서 삶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이 단기·장기적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면서 몰입하여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알아가고 찾아가면서 지역, 외국의 각 문화 이해하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민감성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사용해야 할 언어도 알아가야 한다[52].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타 전문 분야를 인정 및 존중하고 사용하는 언어와 해석에 있어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육, TV나 매체에서 형성된 연령, 세대, 직업, 젠더의 오류를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및

관찰을 통해 가족에서부터 회사, 타 국가도 알리고 올바르게 바로잡아 가야 한다. 가까운 주위 사람부터 삶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및 과정을 의미를 되새기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일상 생활하는 공간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내·외부 클라이언트에게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품질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에서 문제나 갈등이 없는 것이 행복하고 안정되고 삶의 품질이 좋을 것이라 착각할 수 있다. 그만큼 문제나 갈등이 없어 보이고 소위 부자, 상위 계층도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중역할,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 및 인정해야 한다. 특별히 소진되고 힘든 시기,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윤리적으로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반성하며 사고방식과 태도가 유연하고 조화로우야 한다. 이런 역동적 변화 속에 사회 구성원의 가족이 안정되기 위해, 고용 안정성 확보, 일, 직업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도 있다. 그러기 위해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우선 양해를 구하고 서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일, 가족 등 소진될 때는 내·외부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도 잘 듣고 중간점검을 해야만 한다.

각 직업 특성별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상호 간 더욱 이해 폭을 넓혀야 하고 전문성을 살리고 다양한 경험을 한 구성원의 스트레스 해소 예방할 수 있는 연구와 사회 구성원이 행복하고 삶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53]. 예방적 차원에서 실천적 방안이 유연하게 각 직업 및 장소에서 초기에 활용되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과 관련하여 조직에서는 항상 평가 및 성과를 요구하며 유연한 조직문화와 매뉴얼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각 전문 분야에 좋은 방향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상황 이외 서로 민감해야 할 상황 및 조심해야 할 상황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다. 해외연수나 육아휴직 등 공 기간이 있고 복귀했을 때, 외국인이 자신의 모국에서 행하고 온 실적과 업무에 복귀하면 변화된 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직무 성과,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수혜자도 서비스를 받는 장소나 직원도 특별하게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리고,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도 찾아보고 상호 개선될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봐서 서로 해결해 나가 긍정적인 가치와 믿음이 조금이라도 상승하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선행연구와 같이 전공 분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조직 구성원으로 소중함도 알고, 정책 및 실천, 가족, 조

직, 사회 등의 규칙과 제도 등의 약점과 제약을 넘어 열정과 인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54,55]. 개인, 가족, 국가별 취약한 부분과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런 상황을 오히려 강점이 되어 안정되어야 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존엄성, 인격 및 품위에 있어서 윤리 및 사상이 중요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건강, 성별, 국가 등 개인 욕구에 있어 자유로운 정책과 실천이라고 인식될 정도까지는 힘든 노정일 것이다.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개인, 타인, 더 나아가 사회에 너그럽고 희망과 행복, 책임감을 서로 나누고 노력하며 개발해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2차 패널 자료로 분석한 결과이며, 변수 활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고 수급 기간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사회학적 해석을 통해 이런 점을 보완하였으며 대부분 기존 선행연구들이 자기이해 요인 측면에서 논의하였고,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수렴이론, 기대이론, 상황이론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의 가치 측면에서 정부신뢰, 사회인식을 논의한 것에 차별성 및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 삶의 품질을 높이는 기초 정책 정립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는 근로 가능한 연령을 고려한 수급자를 살펴보고, 연구방법에 있어서 질적 연구나 외국자료를 추가적으로 병행하여 분석, 또한 수급 기간을 고려한 다층모형 고정효과를 측정 및 해석 등 더욱 좋은 연계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REFERENCES

- [1] J. S. Ryu. (2004).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4), 79-101.
UCI : G704-000330.2004.56.4.010
- [2] Y. S. Kim & E. G. Yeo. (2011). Korean's Welfare attitude: Focusing on the inconsistency and insignificance of class difference in welfare attitude. *Economy and society*, 91, 211-240.
UCI : G704-000107.2011..91.003
- [3] Y. T. Kim, H. S. Ryuo & H. H. Lee. (2013). Political Dynamic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Revaluation of the end of class politic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5, 183-212.
DOI : 10.17790/kors.2013..45.183
- [4] J. J. Lee & D. M. No. (2015).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 toward Welfare Recipients. *Korean Party Studies Review*, 14(2), 195-224.
UCI : G704-001868.2015.14.2.005
- [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6).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upply Status of paper*.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upply Status of paper*.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upply Status of paper*.
-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upply Status of paper*.
- [9] Y. M. Kim. (2016). Discourse about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y the pres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53), 282-325.
- [10] Noamchomsky. (2018). *Requiem for the american dream*. K. Y. Eun(translator). Seoul. idea Publishing.
- [11] H. J. Kim. (2017). *A Study on the Needy Female Householder's Experience of the Welfare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Jeonnam.
- [12] J. H. Lee. (2016). Health Inequaliti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6(4), 69-95.
DOI : 10.32465/ksocio.2016.26.4.003
- [13] S. h. Ahn (2005). An Integr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Dimensions of Consumption Environmental Quality from the Social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s. *Perspective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33(2), 51-63.
UCI : G704-000306.2005.33.2.00707
- [14] C. H. Lee. (2015). A Study on Influences of the Awareness of Poverty Cause and Inequality on Welfare Attitud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7(3), 375-401.
- [15] Gough, Ian. (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Y. M. Kim & S. O. Lee(translator). Seoul. Hanul Publishing.
- [16] E. S. Kim. (2002). *Content Orgnization and sequence of social studies in aspect of social cogni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 [17] H. Y. Lee & S. L. Park. (2016).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Beyond Self-Interest.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31(1), 267-298.
UCI : G704-SER000012878.2016.31.1.011
- [18] S. Y. Heo & H. S. Kim. (2016). A Study of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2(3), 203-235.
UCI : G704-000662.2016.32.3.005
- [19] Rothstein, B. (2009). Creating political legitimacy: Electoral democracy versus quality of government.

-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3), 311-330.
- [20] S. H. Lee. (2013). *Study on Difference of Suicidal Ideation between Beneficiaries and Non-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Livelihood Security System*.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21] J. Y. Lee. (2015). *The Effect of the Social Conflict Perception on Welfare Attitude*.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22] J. D. Yang, K. H. Koh & A. S. Park (2009). A Study on the Overall Current Livelihood and the Need for Social Welfare Services of the Hearing Impaired Elderly.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19(1), 47-72.
- [23] Lawler III, E. E & Suttle, J. L. (1973). Expectancy theory and job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9(3), 482-503.
- [24] Pierson, P.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5] J. W. Moon & D. S. Jae. (2013). *Social Welfare outline*. Seoul, gyechukmunwhasa Publishing.
- [26] S. H. Oh & K. S. Ahn. (1994). The Study On theories Of the Outputs of welfar Policy. *The Collection of Chinju Tec. Col*, 17, 163-190.
- [27] G. E. Choi. (2016). The Effect of Welfare Status on Welfare Attitud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23(1), 125-150.
DOI : 10.17000/kspr.23.1.201603.125
- [28] E. S. Joo & J. M. Baek. (2007). Class, Public Welfare Experience and Welfare Attitudes in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4, 203-225.
DOI : 10.16999/kasws.2007..34.203
- [29] Lewis, O. (2013). *The children of Sanchez, autobiography of a Mexican family*. H. S. Park(translator). Seoul. imagine Publishing.
- [30] Rawls, J. (2016). *(A)Theory of justice*. K. S. Hwang(translator). Seoul. Ehaksa Publishing.
- [31] S. H. Oh & K. S. Ahn. (1994). The Study on theories of the Outputs of welfare policy. *The Collection of Chinju Tec. Col*, 17, 163-190.
- [32] K. H. Kim. (2003). *A Study On the Convergence of law and morality in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3] O. S. Oh & H. T. Jung & D. J. Lee (2014). *Social Welfare Values and Ethics Moral Philosophy*, Gyeonggi-do, knowledge community Publishing.
- [34] Y. G. Chang. (2013). Causes of Public Trust: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9(3), 189-214.
UCI : G704-000703.2013.19.3.006
- [35] S. H. Ahn, J. Y. Park & S. W. Kim. (2013). The Effect of Housing-related Material Interests on Koreans' Welfare Attitudes: Focusing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Housing Status'. *Social Welfare Policy*, 40(4), 375-398.
DOI : 10.15855/swp.2013.40.4.375
- [36] S. H. Kim. (2012). The experience effect of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on welfare perception: Double difference analysi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19(1), 9-38.
DOI : 10.17000/kspr.19.1.201203.9
- [37] J. W. Nahm & H. R. Shin. (2017). The Change of Attitudes towards Welfar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receiving the Basic Pensio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3(2), 41-75.
UCI : I410-ECN-0102-2018-300-000609156
- [38] Staerklé, C., Svallfors, S. & Van Oorschot, W. (2007). *The future ESS IV module on welfare attitudes: stakes, challenges and prospects*. In *Proceedings of the 34th CEIES seminar on Perspectives of Improving Economic Welfare Measurement in a Changing Europe*. Comité Consultatif Européen de l'Information Statistique dans les Domaines Economique et Social (CEIES).
- [39] S. W. Kim. (2011). Public Attitudes towards olds-age pension welfare states and dynamics of political Cleavages. *The Korea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7(2), 251-278.
UCI : G704-000662.2011.27.2.012
- [40] H. W. Lee & S. N. Park. (2016).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Beyond Self-Interest. *OUGHTOPIA*, 31(1), 267-298.
DOI : 10.15709/hswr.2016.36.4.5
- [41] S. G. Kim & J. W. Oh. (1995). A Study on the Welfare Consciousness of Koreans in the '90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5, 1-33.
- [4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0). *Welfare State and Women's Policy*, Seoul. New Wave : Linders, A. (1998). Abortion as a social problem: The construction of "opposite" solutions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Problems*, 45(4), 488-509.
- [43]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 11th, *Survey data User's Guid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44] J. H. Lee, M. J. Kim, B. H. Lee & J. W. Noh. (2015). Factors Affecting on Suicidal Ideation in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8), 366-374.
DOI : 10.5392/JKCA.2015.15.08.366
- [45] Ba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Reviews*.
- [46] Kline, R.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n Guilford Press. New York.
- [47] Iacus, S. M., King, G. & Porro, G. (2011). Multivariate matching methods that are monotonic imbalance bounding.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6(493), 345-361.

- [48] Y. P. Lee.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service needs of the public aid recipient Alcoholics and Non-alcoholics. *Alcohol and Health Behavior Research*, 2(2), 5-12.
- [49] C. H. Kang & K. S. Kim (2003). A Study of Labor Entry of Conditional Welfare Recipients : An Exploration of the Predi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2, 5-32.
- [50] Papadakis, E. (1992). Public opinion, public policy and welfare state. *Political Studies*, 40(1), 21-37.
- [51] S. C. Kim & M. E. Lee. (2012). The Benefit Fraud Prevention Model in Korea: In light of the Experiences of the UK Benefit Fraud Inspectorate(BFI).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30, 273-292.
DOI : 10.15856/jakpah.2012..30.273
- [52] I. H. Lee. (2019). Congruity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Image on the Satisfaction to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SEN Club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175-185.
DOI : 10.16972/apjbve.14.5.201910.175
- [53] J. R. Park. (2016). Impacts of Factors of Welfare Attitude for Social Workers in Seou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432-448.
DOI : 10.5392/JKCA.2016.16.02.432
- [54] M. J. Park, J. K. Kim & Y. H. Kim. (2019). Collaborating Community-Oriented Medical and Social Services: Baldrige Model and Societal Contributions. *The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20(4), 109-124.
DOI : 10.15706/jksms.2019.20.4.006
- [55] S. Y. Min, S. W. Kim & H. R. Jeong. (2019). Community collaboration experiences of the integrated child protection specialized services demonstr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6), 1-37.
DOI : 10.24300/jkscw.2019.06.66.1
- [56] Caliendo, M. & Kopeinig, S. (2008). Some practical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2(1), 31-72.

엄 주 란(Joo-Ran Eom)

[정회원]



- 2011년 8월 : 성균관대 대학원 (사회 복지학 석사)
- 2018년 2월 : 한세대학교 대학원(사회 복지학 박사)
- 2019년 12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산 학협력단 계약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방법론, 보건복지
- E-Mail : jreom20@uohs.ac.kr

문 재 우(Jae-Woo Moon)

[정회원]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복지
- E-Mail : moon1229@hansei.ac.kr

Appendix 1. Variables

	Variable Rename	Variable Contents		Variable Handling	Item Contents	
Dependent	Welfare Attitude	Cost Sharing Will for Welfare Expanding		1=Very opposite 7=very Agreement	Are you in favor of the argument that you must raise more taxes to increase welfare budget? (seven-point scale)	
		Growth vs Redistribution		1=Growth oriented~4=Distribution Oriented	What do you think is important for growth and distribution? (four-point scale)	
F a c t o r	Government trust (Evaluation)	How well do you think the our government is doing in each of the following policy areas related to social policy? Do you think or not? Providing medical care to a sick person.				
		Government Trust (Evaluation)	Medical and Health service, Stability of the Old Man's life, Disabled Services, children day care, Prevention of Poverty, Unemployment, Gender Equality, good living environ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education [9 questions]		5=Very well 4=Wall 3=Usually 2= Poor 1= Very poor	To help older people maintain a proper quality of life. Providing services to reduce inconvenien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provide high quality and sufficient child care services. Poverty Prevention and Reduction Responding to Unemployment Raising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To make sure that everyone can live in a sanitary and appropriate home. School education for talent development. (Five-point scale)
	Welfare Policy Program	Please indicate if you want to increase or decrease government spending in each of the following area listed next.				
		Quality of Life	Environment, Health Insurance & National Pension, Education [4 questions]		5=A lot more spending 4=More spending 3=The current level of spending 2=More Spending 1=a less more spending 6=No Selection(Missing treatment)	Environment/ Health insurance and health /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Education(Six-point scale)
		Protective (positive) Policy	Vulnerable Social group of life Support, Family Support for Care Children. Unemployment Measures And Employment insurance [5 questions]			Poor living support/ Elderly Support/ Disabled life support/ Family support to raise a child/Unemployment measures and family support (Six-point scale)
		Social Order(Public Order)	National Defense, Public order[2 questions]			Maintaining national defense/protection and social order (Six-point scale)
	Welfare (Charity) Case All people vs Selectively (minority)	Social Service Provision Target	1=All the People~5=A Poor Person			When the state collects taxes to provide social insurance such as medical care and pensions, or social services such as childcare and nursing care, there are ways for all citizens and only for the poor. Which method do you think is the right way to proceed? (Five-point scale)
	Social Awareness	High-Income Tax Level	High-Income Tax Level	1=High Taxes ~5=Low Taxes 6=No Selection(Missing Treatment)		All citizens(all members of society) / the poor (Five-point scale)
		Fair of Income and property	Fair of Income	1=Very Egalitarian ~ 7= Unevenly Distributed		How equal do you think our country is in terms of income or property? (Seven-point scale)

Note.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measurement : Calipers were used as 0.5 to avoid matching too large observations for differences in propensity scores. The maximum permitted range of matching is approximately the same in the 0.01-0.99 interval between approaches. Personal fruit measurement can be excluded from reason between .04 and .07. When the propensity score or Odd ratio is not performed by the PSM matching method, it is a case where matching is performed with members having the same characteristics. Nearest Neighbor Matching may be more accurate than the kernel matching(Caliendo, M. & Kopeinig, S, 2008) [56]